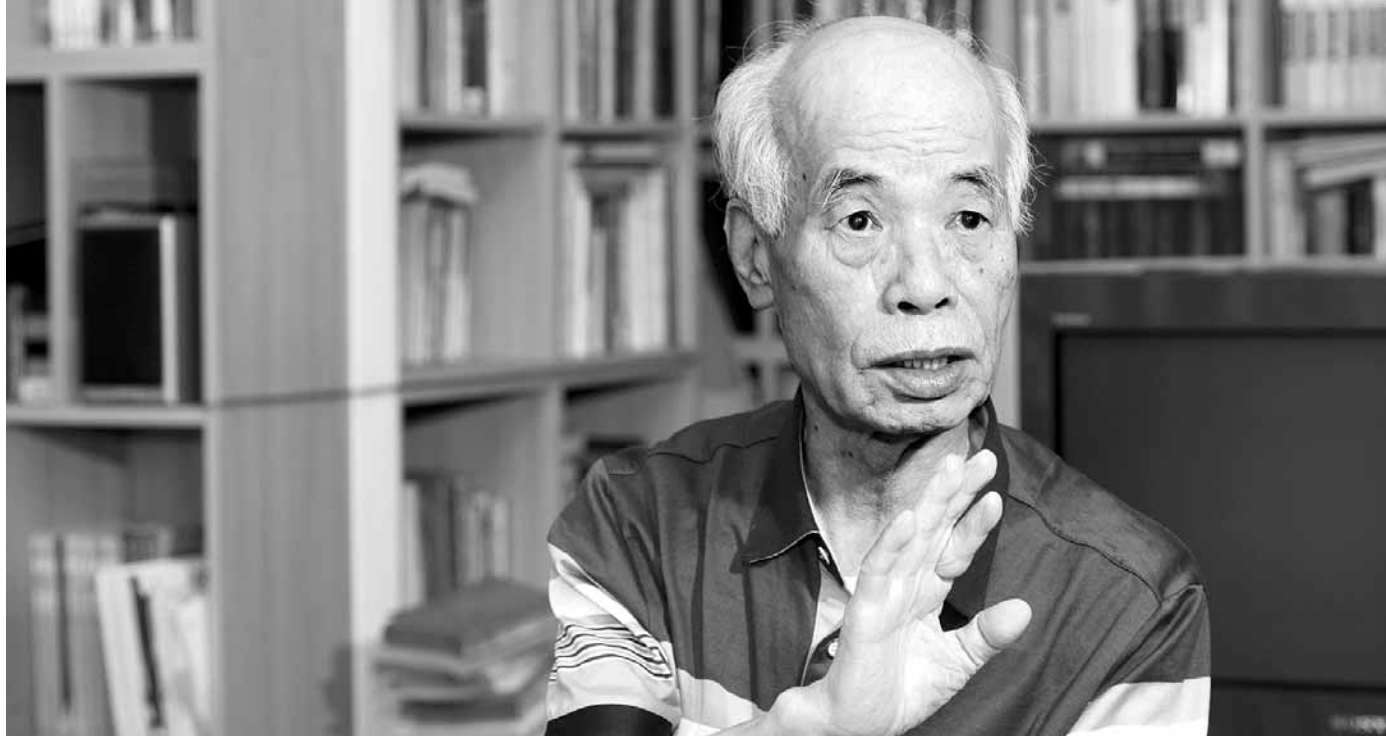


“좋은 사람은 좋게, 나쁜 사람은 나쁘게 써야지요”

컬처 & 피플

역사학자 이이화



한국 근현대사를 몸으로 부대껴온 이이화(77) 선생은 평생 재야역사학자로 살고 있지만, 가장 대중적인 작가이기도 하다. 이 선생은 파주 헤이리에 있는 주거 겸 집필공간에서 광주일보 취재진을 맞았다. 학계에서 그는 ‘작은 거인’으로 불린다. 흔히 재야 역사학자라고 하지만 그는 오래전 제도권 학자들의 업적을 넘어섰다. 지금까지 공저를 포함해 무려 100여권의 책을 썼다. 이를 바탕으로 민중사, 문화사, 생활사라는 영역을 개척했다. 대표작은 ‘이이화 한국사 이야기’(전 22권), ‘녹두장군 전봉준’, ‘인물로 읽은 한국사’(전 10권),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전 9권) 등이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중들의 삶을 조명해온 그는 집략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일본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었다.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진정된 사죄를 거부한 데 이어 군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는 행태 때문이다.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적 식민지정책 침략정책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들먹이는데 모두 헛소리죠. 사람 죽이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똑같은데 일본은 독일과 다르다는 억지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가 내놓은 한일 관계 해법은 간명하다. 양국의 미래를 기약하는 첫 출발점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배상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대한민국의 주장은 일본에서 생각하듯 과격한 게 아닙니다. 일제침략에 대한 복수나 일본과 전쟁을 하자는 얘기도 아니다. 과거사를 진정으로 시인하고 사죄한 뒤 한·일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자는 기본적인 얘기일 뿐입니다.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는 인권유린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광주출신 재야사학자 문화사·생활사 영역 개척 “이름 없이 죽어간 민중들 당당한 삶 써주고 싶어요”

그가 역사인물에 관한 책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만큼 유혹도 많이 받았다. ‘가문의 영광’에 목을 매는 문중에서 특정 인물을 미화해달라고 회유하거나 청탁하는 일이 많았던 것이다.

“그를 쓰면서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어요. 나만의 윤리기준을 지킨 것이죠. 좋은 사람은 좋게, 나쁜 사람은 나쁘게 써야지요.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을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 폄박하고 때려잡은 사람을 좋게 쓰면 되나요.”

이이화 선생은 최근 한국사가 고교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이 된 것을 무엇보다 반겼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한국사를 넣었다.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 통일정책을 부각하고, 군부정권의 고려 무신정권·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수능에 필수로 국사를 집어넣은 것은 좋았지만, 정부 입맛대로 국사 교과서를 쓰는 사태를 막기 위해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합니다.”

한 때 문도학을 꿈꿨던 선생은 최근 세태를 인문실종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조선 시대에는 인문정신의 과잉이 문제였다면, 현재는 인문정신이 아예 없다는 게 심각한 사태라고 말했다.

“대학교에서 구조조정하면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철학 등 인문학과잖아요. 식민지를

거쳐 남북분단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젊은이들이 우리 역사를 너무 몰라요. 우리나라가 산업화하면서 영어와 수학 중심으로 학제가 편중운영돼온 게 문제지요.”

그가 역사를 독학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는 문제의식이였다. 20대 때 남북분단과 식민지 문제를 고민하다 역사공부에 빠져들었다. 더구나 기존 역사서는 승자 위주의 기록으로 지배세력 중심이었고 가려진 부분이 너무 많았다. 정작 역사의 주역이었던 민초들의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이다.

역사학계에서 동학문제에 관한 그의 존재는 독보적이다. 역사문제연구소를 꾸려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30권의 사료 총서를 출간한 게 대표적이다. 1989년 역사문제연구소 부설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초대이사장을 맡은 것도 그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현재와 미래, 자본주의의 문제를 청산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동학의 정신은 3·1운동, 4·19, 광주항쟁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이 반드시 역사의 정의가 돼야 합니다. 동학도들이 절규했던 인권문제는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광주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부 하겠다며 집을 뛰쳐나와 고아 아닌 고아로 보육원 등을 전전하던 중 광주고등학교 입학시험에 합격, 곡절 끝에 학비를 스스로 벌어서 공부했다. 여인숙 종업원, 술집 웨이터 등 안해본 일이 없다.

이이화 선생은 “역사는 평생 공부하고 써야 할 과제”라고 했다. “한국인권사, 특히 한국어여성사를 쓰고 싶어요. 역사에 소외받은 여성의 문제도 결국은 인권과 관련돼 있습니다. 민중들이 이름없이 죽어갔지만 당당한 삶을 살았다고 써주고 싶어요.”

/파주=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3년 전 이맘 때였던 걸로 기억된다. 조금 이른 저녁을 먹고 7시30분 공연을 취재하기 위해 들른 싱가포르의 복합문화시설 에스플라네이드 1층 광장에는 수백 여명의 관객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면 30분이나 남았는데 객석의 분위기는 이미 들떠 있었다. 이윽고 싱가포르에서는 꽤 유명한 가수 윌러리 프란시스가 등장해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클리프 리차드의 ‘The Young Ones’, 맨프레드 만의 ‘Do Wah Diddy Diddy’ 등 흘러간 팝송을 부르자 누가 먼 저랄 것도 없이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차도르를 덮어쓴 여성, 말끔

“한국의 에스플라네이드”를 내걸고 2003년 첫삽을 뜬 문화전당은 ‘빛의 숲’(유구성 설계)을 주제로 총 3조5000억 원이 투입된 초대형 국제사업이다.

이처럼 광주의 미래를 바꿀 빅프로젝트이지만 시민들은 지상건물이 아닌 지하에 들어 앉은 문화전당의 컨셉 때문에 제대로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일까. 이날 시민들의 표정에선 베일에 가려졌던 문화전당의 ‘생얼’을 볼 수 있다는 설레임이 가득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미디어 퍼포먼스였다. 빛고을의 성장동력인 미디어 아트를 ‘빛의 숲’

에스플라네이드의 추억

한 정장 차림의 남성 등 외모는 다양했지만 음악은 즐기는 마음은 모두가 하나였다.

이날 공연은 에스플라네이드가 기획한 ‘오늘의 음악회’. ‘지난 60년대를 되돌아보며’라는 테마로 진행된 무대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 지난 2002년 개관과 동시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는 음악회는 ‘타이밍’만 잘 맞으면 기자처럼 이방인들도 객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비록 1시간 남짓의 음악회였지만 에스플라네이드의 킬러콘텐츠라고 할 만한 일이 실감났다.

지난 주말 ‘2014 문화의 달’ 기념행사가 열린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 내 아시아 문화광장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에스플라네이드의 추억’이 되살아 났다. 아시아 문화광장은 이날 말 준공되는 문화전당의 야외광장으로, 지난 10년 동안 꼭꼭 감춰왔던 모습이 이날 최초로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에서 쏘아올린, 말 그대로 ‘빛의 향연’이었다. 문화전당 외벽을 캔버스 삼아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씨와 지역 예술인들이 어우러져 심장과 지역 예술인들이 어우러져 심장과 무용, 영화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광주의 꿈’은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었다. 문화전당에 대한 기대와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었다.

내년 9월이면 문화전당이 역사적인 개관을 맞는다. 아직도 일각에선 ‘잡하지 않는’ 콘텐츠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광주의 꿈’처럼 야외광장에서 즐길 수 있는 ‘필살기 콘텐츠’로도 얼마든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광주를 찾는 외지 관광객들도 ‘문화전당에서의 멋진 추억’을 하나씩 안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3년 전 에스플라네이드에서의 기자처럼.

<편지부국장·문화선임기자>

25일 장흥 천관문학관서 비타포엠 시낭송회

“강물은 이미 지나온 곳으로 가지 않나니/ 또 한해가 같 것 같은 시절쯤이면/ 문득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네 / 사랑했던가 아팠던가 / 목숨을 걸고 고백했던 시절도 지나고 / 지금은 다만 / 세상으로 내가 아픈 시절...”

제36차 비타포엠 시낭송회(회장 김원)가 ‘찾아가는 시낭송회’ 일환으로 오는 25일(오후 1시 30분) 장흥 천관문학관에서 열린다.

이런 시낭송회는 천관문학관 관장으로 재직 중인 이대흠 시인을 초청 ‘쓰지 않아도 될 말은 지워버리는 게 좋다’로 주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초청 시인 강연에 이어 김석운, 김완, 김미승, 서애숙, 안오일, 이인범, 이지담 시인 등이 자작시를 낭송하며 회원들과 함께 장흥 반촌을 둘러볼 예정이다. 광주 5·18기념재단 주차장에서 출발한다. 문의 061-860-0457.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 각종 인쇄물
- 전단지
- 상패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상패
- 전단지
-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